

## 재산보험 인상 때 시민 개입 막는 발의안 추진 감독관 임명직 전환 등 업계, 소비자 모두에 파장 전망

캘리포니아의 재산보험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1988년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주민발의안 103'을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된다. '주민발의안 103'에 따르면 주택·자동차·기타 재산 및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보험회사가 반드시 선출직 보험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민이 요율 인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새 발의안은 2027년부터 보험료 승인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보험감독관을 선출이 아닌 주지사 임명직으로 전환하며, 시민이 요율 신고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앤다. 이 조치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발의안이 2026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5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통과 시, 현재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관이 추진 중인 보험시장 안정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새 발의안은 재난모델링과 재보험 비용 반영을 허용하는 등 업

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고위험 산불 지역의 보험 유지·확대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보험감독관실 대변인 몰리 위든은 "주민발의안 103은 소비자가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며 라라 감독관은 이번 발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워치독은 주민발의안 103은 수십 년간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1,500억 달러 이상 절감했다고 주장하며, 새 발의안이 통과되면 주택·자동차 보험료가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소비자 옹호단체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에이미 바흐 대표는 주민발의안 103이 중요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담고 있지만, 시민 개입 절차가 승인 지연과 정치적 압력을 초래해 시장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워싱턴DC 기반 소비자연맹은 "이번 발의안은 전국에서 보험료 급등이 심각했던 주들의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셈"이라며 "보험사 감독을 없애는 것은 마치 화재 한 복판에서 소방서를 폐쇄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 남가주 최악 도로 10번 최상은 261번



▲ 10번 프리웨이와 405번 프리웨이가 남가주 최악의 도로 1위와 3위로 선정됐다. 사진=shutterstock

남가주에서 교통사고 위험성과 극심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최악의 도로로 10번 프리웨이가 선정됐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운영하는 성과측정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남가주 내 주요 프리웨이 25개 구간을 비교해 순위를 매겼다. 분석 기준은 평균 속도, 지연 시간, 생산성 손실, 사망사고 건수 등 4가지 지표였다.

평가 결과, 10번 프리웨이는 -1,300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최악으로 꼽혔다. 점수는 평균이 0점이며, 500점 이상은 '좋음', -500점 이하는 '나쁨'으로 분류된다. 10번은 평균 속도가 시속 52마일로 25개 노선 중 가장 느렸다. 지연 시간 역시 최악이었으며, 생산성 손실은 8번째로 높았다. 2022년 기준 사망사고 건수는 총 90건으로 비교 대상 중 가장 많았다.

2위는 605번으로, 평균 속도는 시속 52마일(느린 순 6위), 지연 정도는 5위, 생산성 손실은 3위, 사망사고는 15건(8위)을 기록해 -600점을 받았다.

3위는 405번(-500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속도는 시속 53마일로 2번째로 느렸고, 지연 수준 역시 2번째로 심각했다. 생산성 손실은 14번째였으며, 2022년 기준 사망사고는 28건으로 13번째로 많았다.

가장 좋은 프리웨이는 261번이었다. 평균 속도는 시속 66마일로 가장 빨랐으며, 지연과 생산성 손실도 25개 노선 중 두 번째로 낮아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 애너하임시서 이민 단속 지속 세차장, 홈디포서 최소 6명 체포

애너하임시에서 이민 단속 급속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유클리드 스트리트와 라팔마 애비뉴 인근 유클리드 세차장에서 이민 단속이 벌어져 남성 한 명이 체포됐다. 이 세차장에서만 지난 7월 3일 이후 세 번째 단속이다.

브룩허스트 스트리트의 홈디포 매장 단속에서도 최소 다섯 명의 노동자가 요원들에게 체포돼 현장에서 이송됐다. 당시 요원들은 국경순찰대와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애너하임시는 성명을 통해 이 홈디포 매장이 6월 이후 약 여섯 차례 이상 단속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이민 단속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이곳은 매우 위험한 장소가 됐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임시 금지 명령 발효 이후 표적 단속과 대규모 활동이 늘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방식을 문제 삼아 연방 소송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12개 이상 도시가 잇따라 소송에 참여하며, 인종과 민족을 근거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너하임시는 "연방 이민 단속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전 통보도 받지 않는다"며 "시 차원에서 현행 단속 방식을 지지하지 않으며, 다른 도시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애너하임시는 단속 상황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번역해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한편 16일 오전 샌버나디노에서는 표적 이민 단속 작전 중 연방 요원이 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은 "장인과 18세 사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등록 차량과 복면을 쓴 남성들이 몰려와 차량을 에워쌌다"고 ABC7에 밝혔다.



**“자동차, 집 보험”**  
보험료가 많이 올랐나요?  
보험 갱신을 안 해주나요?

문의 환영

**25년 경험으로** 고객에게 맞는 좋은 플랜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3년 고정 이자 4.75%**  
(\*최소 예치금액 \$100,000)  
2025년 8월 8일 기준(양후 변동 가능). 3년 내 해약 시 패널티 적용.

LiveWell Guarantee Max, a multi-year guaranteed annuity issued by Midland National Life Insurance Company.

Anaheim Office: 323 N. Brookhurst St., Anaheim

정확하고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올스테이트는 메이저 회사로서  
고객을 우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714.340.6903 / 714.715.8088  
YOUNG K. PARK, JD  
CA Lic No. 0C71251  
YoungPark@Allstate.com

